

사순절 묵상집
2008





권두언

통회하는 사순절

이 영길 담임목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 17]

몇 년 전 New Orleans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마침 사순절이 막 시작되려는 무렵이었습니다. 매일 온 도시를 축제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웬 축제인가 하는 궁금증은 시간이 갈수록 더해 갔습니다. 그들은 축제 이름을 Mardi Gras라고 불렀습니다. 알고 보니 Fat Tuesday라는 뜻이었습니다. 곧 사순절이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 전날을 Fat Tuesday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수요일부터 금식하고 절제해야 하니 그전까지 흥청망청 놀고 먹자는 뜻에서 Fat Tuesday라고 불렀고 축제 이름을 Mardi Gras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이들은 일년 내내 사순절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Fat Tuesday를 기다리고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사실 Mardi Gras 축제에 사용할 가장행렬을 일년 내내 만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Fat Tuesday 이틀 전에 돌아왔으니 진짜 Mardi Gras 축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Fat Tuesday 다음날의 모습이었습니다. New Orleans의 재의 수요일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통회하는 마음으로 재의 수요일을 맞이했을까요?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로 사순절 묵상집을 발간합니다. 작년에 온 교우님들이 묵상집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온 교우님들이 함께 심령의 통회하는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날을 회상하고 자신의 죄성을 고백하며 각자의 눈물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눈물이 닿은 곳은 예수님의 은혜로 어느덧 육토로 변하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 열매를 맛보며 우리는 진정한 축제의 삶을 누렸습니다. 은혜의 Mardi Gras를 누렸던 것입니다.

올 해도 지난 날의 우리들의 아픔을 나누는 시간이 찾아 왔습니다. 일년간 굳어졌던 땅에 눈물을 흘리는 시간입니다. 교우님들의 글을 읽으며 그들의 고통을 느껴 보십시오. 아울러 그 글을 쓰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통을 나눌 때 우리는 더욱 아름다운 옥토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진정한 축제의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수고하여 주신 홍보위원회와 예배위원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모여서 기도로 준비해온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생활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어 수고하시는 여러분의 수고로 인해 은혜의 Mardi Gras의 축제는 시작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2월 6일

참회의 기도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시편 32:5)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서는 지으신 것을 하나도 멸시하지 않으시며,
참회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 뉘우치는 마음,
곧 진실로 우리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고백하는 마음을 주셔서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관용과 용서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 계시고 다스리실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재의 수요일’ [공동예배서] 중에서..



목요일 / 2월 7일

용서하여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 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마태복음 18:15-17)

악성빈혈로 고생하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담당의사가 오랫동안 정성을 쏟았으나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의사는 입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입원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환자는 그 사이 너무나 건강한 혈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검사결과 역시 정상이라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당황한 의사는 그녀에게 그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를 “제가 무척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전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마음을 바꾸었지요. 그 후로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돌아 오더니 몸에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살다가 형제자매로 인해 고통스러울 때, 그리고 나로 인하여 형제자매가 고통스러워 할 때, 그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생각을 풀어가며 용서하는 기도를 하세요. 마음과 육신에 평안이 찾아오며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신미송 집사)

지금도 온화한 미소로 저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는 주님의 자비에 힘입어 모든 이를 용서하고자 합니다. 아멘.





금요일/2월 8일

고난을 자처하는 삶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 (마가복음 14:36)

나에겐 싱가포르에서 유학 온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신학을 공부하기에, 한번은 Suffering God이란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하나님과 무슬림의 하나님과는 달리 오직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가진 특징이 바로 Suffering God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시며 그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배신과 불순종의 고통을 당하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말인즉,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대학생 시절 참석했던 한 수련회에서 강사님은 이 시대를 가리켜 고난을 회피하는 시대라고 진단하였습니다. 그 강사님은 특별히 기독교가 고난 가운데 갖는 특수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하여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 분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있는가를 자문하기 위하여 한 가지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바로 “나는 어떠한 고난의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입니다.

고난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불행하거나 불운한 것과는 다른 맥락에서 사용됩니다. 고난이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 맞이하는 어려움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마땅히 당하는 그리고 인내하는 고난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음식과 기도의 원칙을 지키고자 풀 무불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박해와 순교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에 힘썼습니다.

오늘날엔 더 이상 성경에서의 고난들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선교지와 몇몇 특수한 상황들을 제외하면 우린 상당히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나는 쉽게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포기해야 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돈과 명예, 육신의 쾌락 등을 버리는 삶을 택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고통 당하신 하나님, 고난의 참된 의미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어 고난을 자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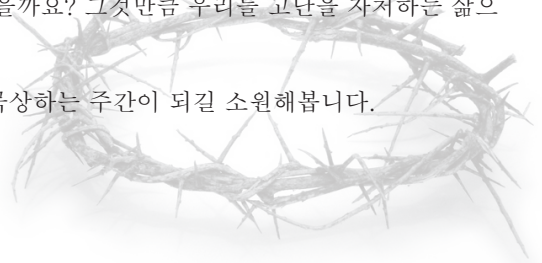


복음을 전하는 삶의 선택들도 떠올랐습니다. 그것들을 위하여 나의 것들은 포기하여야 한다는 것도 말입니다. 하지만 왜 그래야 하는가라는 의문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만족스러운데 왜 굳이 고난을 찾아야 하는가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의 고난이란 스스로 고난을 선택하는 것 자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꼼꼼히 생각해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택하셨을까? 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을 위하여 굳이 십자가를 택하셔야만 했을까? 누가 시켜서도, 어쩔 수 없이 하신 것도 아닌데, 왜 그분은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시기로 결정하셨을까? 고난을 자처하는 원동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배신과 불순종을 아시면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나는 상상도 할 수 없지만, 부모는 자녀를 사랑으로 낳고 기릅니다.

나의 삶 속에서도 고난을 자처해야만 하는 일들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내가 포기하고 인내해야 할 것들이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아는 것에서만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는 그분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자 함에 있습니다. 그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하여 자처하신 그분의 지극하신 사랑입니다. 골고다 언덕에 흘린 땀과 피와 눈물만큼 우리의 냉랭한 가슴을 적실 것이 있을까요? 그것만큼 우리를 고난을 자처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강한 원동력이 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번 사순절이 고난 당하신 예수(Suffering Jesus)를 깊이 묵상하는 주간이 되길 소원해봅니다.





토요일 / 2월 9일

사순절 계율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 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이로 말미암아 왕 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21)

1. 회개합시다 - 철저히 나의 죄된 모습들을
2. 용서합시다 - 무조건 용서할 수 없는 너와 나를
3. 포기합시다 - 한 가지씩 포기하기 힘든 것들을
4. 금식합시다 - 한끼씩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5. 구제합시다 - 때를 찾아 눈과 귀를 크게 열어
6. 사랑합시다 - 끝까지 사랑하기 힘든 분들까지
7. 기도합시다 - 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게
8. 감사합시다 - 범사에 받은 은혜를 찬양하며
9. 소망합시다 - 우리 모두 부활하는 그 날을...

(김문소 장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부활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주일 / 2월 10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저희가 예수를 맡으며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오시니 저희가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요한복음 19:17-22)

스위스 평원에 '세상의 한 가운데' 라는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 세상은 둥근 공이니 어디나 다 한 가운데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이름이 주어진 이유는 두 빗방울이 나란히 떨어지면 한 방울은 라인강을 거쳐 북해로, 다른 한 방울은 론강을 거쳐 지중해로 흘러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같은 고난이라는 빗방울이 떨어져도 우리가 어떻게 이 고난의 빗방울을 맞이하느냐에 따라 빗방울의 의미는 180도로 변합니다. 여러분은 늘 찾아오는 고통을 어디로 보내시기 원하십니까?

능동적으로 반응하십시오. '나를 가르소서' 찾아 오는 고통을 유도로 얻어치기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멋진 유도선수가 되기 위하여 사순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절제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강철보다도 단단한 우리들의 죄로 굳어진 마음이 갈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보석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교우여러분,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능동적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갈보리산의 유도 선수가 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영길 담임목사)
2006년 4월 2일 설교중에서

하나님, 인내 안에 감추어진 승리의 약속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첫째주 월요일 / 2월 11일

나의 고백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 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요한복음 16:24)

교회에 나오면서 주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한 없는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믿음 가운데서 기쁨이 넘칩니다.
설교의 말씀을 읽으면 위선의 탈을 쓴 나를 보게 됩니다.
때로는 죄로 철갑을 두른 나도 봅니다.
놀라운 음성을 듣고서 구원의 손길을 찾습니다.
겸손하고 진실되며 경건하기 원합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구속과 사랑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영광 중에 승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영원합니다.
영원한 기다림은 찬송으로 메아리 칩니다.
주님의 날 오늘도 교회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 드립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땅에서는 인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백 린 장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입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주 화요일/2월 12일

참된 주님의 제자 되기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1:9)

저희들에게 매일 아침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에 우리 가족 모두가 하루를 주님과 함께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끝맺음을 할 수 있도록 아침마다 기도를 드립니다.
그 짧은 기도가 육신이 연약한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힘이 되어 주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랫동안 육신의 고통으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안고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주님을 알게 되었을 때
저의 고통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깨닫는 순간부터는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더욱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졌을 때마다 주님은 저에게 다시 제자리를 찾아주셨고
아내로서 엄마로서 못다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생각과 안일을 추구하는 자가 되지않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 속에 거것된 마음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서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주님을 위해 몸 바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내일도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김은미 집사)

주님, 저희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첫째주 수요일 / 2월 13일

고난, 절망 속의 소망...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앞으로다." (로마서 5:3-4)

고독, 고난은 하나님에게로 가는 매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성숙한 인격체)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바울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중에서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얘기하면서 말입니다 (롬 5:3-4).

그러나 일상에서 경험하는 고난은 그 반대인듯 싶습니다.
오히려 고독과 고난뒤엔 절망이 뒤따르니 말입니다.

C.S. Lewis가 그 한 예지요.

그는 아내가 죽고난 뒤 출판한 '헤아려본 슬픔' 이란 글에서 그의 절망의 깊이를 얘기합니다.
천국도 필요없고, 하나님도 필요없고, 그는 절망속에서 아내를 죽도록 내버려둔 하나님을 욕합니다.

하지만,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 절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혹 절망이 닦쳐온다고 해도,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던 그 분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음을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에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고난받는 이였지만, 그 분은 그것으로 인하여 참다운 왕이 되셨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만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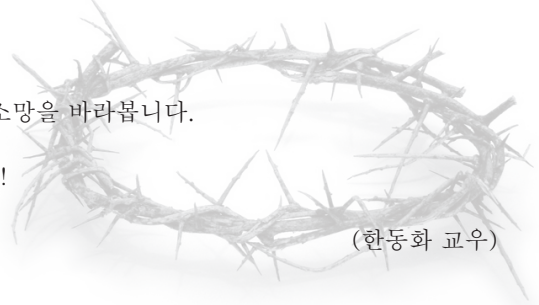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버림을 당해야 (막 8:31) 되고, 사람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고 (9:31), 그럼에도 사람들을 섬겨야 (10:45) 되었지만, 그럼으로써 그 분은 진실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15:39).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 고난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의 축복에 대한 약속을 받게 되지요 (갈 3:29). 그래서 우리 고난받는 이들은, 예수님의 수난 속에서 하나의 참다운 메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의 소망을 낳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고난을 인내한다면,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되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꿈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에 쉽게 지치고 낙담해지기 보다는,
소망과 비전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만들어가실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오히려 희망의 근거로 만드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생각하며,
내 안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희망의 종교입니다.
고난을 절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고난속에서도 오히려 소망을 바라봅니다.
고난속의 우리가 오히려 기뻐해야할 이유가 거기에 있지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움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동화 교우)



사순절 첫째주 목요일 / 2월 14일

감사의 눈물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시편 56:8)

저는 힘든 고난이 있을 때마다 시편을 읽습니다. 시편은 상한 제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줍니다. 시편은 저에게 힘든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이야기 해줍니다.

때때로 눈물이 날 정도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오면 저는 제 마음에 와 닿는 시편 구절을 저의 Journal에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옮겨 적은 구절을 자주 읽으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묵상합니다.

그러다보면 그 힘든 고난은 무게가 가벼워지고, 작은 소망으로 변해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작은 소망을 품지 않고서는 저는 아무일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질문 하나를 해봅니다. "내가 품고있는 이 작은 소망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놀랍게도 저의 작은 소망은 저에 대한 주님의 사랑과 저의 죄에 대한 주님의 용서로부터 움을 깨닫게 됩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주님이 저의 눈물을 닦아 주시기 위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가 품고있는 이 작은 소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습니다.

(윤선미 집사)

저희를 위해 당하신 주님의 고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첫째주 금요일 / 2월 15일

나의 십자가를 지고...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시편 103:11-14)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등등, 하나님의 속성은 너무나 다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매일, 아니 매 시간, 숫자로 셀 수도 없을 만큼의 죄를 짓고 사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채 행동하기가 일쑤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었으며,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내 모습을 번번히 보게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며 내 중심으로 살아가는 죄인 된 모습의 저이지만, 왜 그렇게 저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는지,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옥 심판만이 합당한 나의 이기적인 자아를, 아버지께서는 덮어주시고, 제가 변화되는 그 날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번 쓰러지는 나의 모습을 뒤돌아 보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지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되는 똑같은 죄들의 반복이 가끔은 저로 하여금, ‘내가 정말 주님의 자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라는 생각과 함께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제가 진심으로 주님께 회개를 하고 나오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의 죄과를 옮기신다고 말씀하시며, 저의 죄성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며 저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죄를 판단하여 벌을 주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손수 하셔야 하는 일이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제가 가야 하는 가끔은 외롭고 힘든 그런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쓰러지고, 또 넘어지겠지만 그래도 주님 만나서 칭찬받는 그 날까지, 저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차민호 교우)

아버지, 저의 앞 길을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첫째주 토요일 / 2월 16일

Gentleness: The Fruit of the Holy Spirit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Philippians, 4:5)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빌립보서 4:5)

I am in need of another season of Lent and thank God that Lent is here again.

During this time, I pray that the Holy Spirit will dissolve the layers of greed, arrogance and laziness that have built up around my soul and that the Holy Spirit will purify my heart.

This Lent, I pray for the ability to live by one particular scripture which has moved me.

Phillipians 4 says: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simplistic complexity of this instruction challenges me and makes me yearn to follow it – to always be gentle, fair, merciful, compassionate and charitable to others – as Jesus was. This scripture rings in my ears and touches my heart.

I am reminded of a passage from a poem that our pastor read to us in one of his sermons. Loosely translated into English, it went something like this: "When I called out her name, she came to me and blossomed into a flower."

I envision the people who were fortunate enough to have been called out by Jesus, who were helped by Him, healed by Him, spoken to by Him, loved by Him. I imagine those people hearing His voice, feeling His touch, and blossoming like flowers nurtured by His grace and His gentleness.

It is an incredibly peaceful and joyful image. How I long to feel that joy and peace. And what joy must have filled Jesus' heart as He saw God's love and salvation pouring out through Him to those He touched.

Some say it takes 3 or 4 weeks to learn a new habit or break an old on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is is my aspiration for Lent this year and for all the year long. Help me, Lord. Amen.



Lent is roughly 6 weeks long. If I endeavor hard every day and with my every human encounter, can I learn in that time to emulate Jesus' gentleness and make it a part of who I am?

Gentleness is but one piece of the fruit of the Spirit and I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be worthy of God's salvation.

But if by showing my gentleness to others, it will bring me any closer to experiencing the joy and peace that is only God's to give, I know it is what I must strive to do. And I know that by following the words of this scripture, others will see the light of Jesus shining through me and perhaps they too will feel His grace and gentleness and blossom like flowers.

이은주 집사
(Eunice Lee)





사순절 둘째주일/2월 17일

참사랑의 길에 동참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로마서 7:14)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로마서 7:24)

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산뜻하고 또 차분한 수국은 제가 좋아하는 꽃 중의 하나입니다.

며칠 전 가게에 나갔다가 탐스럽게 핀 하얀 수국 화분을 하나 사왔습니다. 흰 눈으로 덮힌 겨울 풍경과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물을 주노라면 상큼한 내음이 가슴 속 깊이까지 스며들어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며칠 안 가서 꽃이 시들시들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겨울 실내에서라 햇빛이 부족해서인가 보다. 역시 나는 키우는 재주가 없나보다' 하고 안타까웠지만 그냥 시든 꽃만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날은 토요일이라 한국학교 수업이 있어 아이들과 아침 일찍 나갔다 오후에 들어왔는데 꽃이 다시 싱싱하게 살아있는게 아닙니까! 어떻게 된 영문인지 혼자 집을 지켰던 남편에게 물었더니 시들어 있길래 물을 충분히 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어머? 나도 매일 기쁨으로 물을 주었었는데..." 하고 말꼬리를 흐렸더니 덧붙이는 말이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랍니다. 그리고 보니 꽃을 좋아해 사기는 잘 하지만 제대로 키워낸 적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에 기분이 좋지는 않았지만 결과가 그러니 할 말이 없었습니다.

나의 관리법에 뭔가 잘못이 있지 않았나 하고 그제서야 수국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꽃말도 관리법도 꽃의 특징도... 남편 말대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였습니다. 내가 조금 더 관심이 있었다면 먼저 그 식물의 특징과 관리법을 알아보는 것이 순서였을 것입니다.

주님, 사순절 기간동안 자신을 훈련시키며 영적 성장의 시기로 사용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진정한 사랑을 하려면 그렇습니다. 우선 나 자신부터 철저히 돌아보아야 하고, 상대방에 대해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몸소 실천함으로 기술도 방법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의 죄 고백의 탄식과는 거리가 먼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너무 의인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을 크게 보는 너무 밝은 눈을 가진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신을 미워하는 대신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는 이상한 가슴을 지닌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십자가 중심의 삶과 회개 중심의 삶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지니셨던 처절한 죄 고백과 탄식을 가슴에 지니면서 남은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한다는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생각해 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은 형식적인 경건에 매달리기보다는 자신의 죄된 습성을 발견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보여 주신 참 사랑의 길에 함께 동참하는 축복을 얻는 기간이 되어야겠습니다.



(윤미자 집사)



사순절 둘째주 월요일 / 2월 18일

용서의 기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마태복음 6:12]

고난의 주님,

주님께서서는 일찍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형제의 작은 잘못도 선뜻 용서해 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 어찌 주님께 우리의 죄사함 받기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겠는지요?

주님, 도와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영, 성령께서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참된 주님의 자녀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한승희 장로)

주님의 고난을 통하여 저희들도 희생하는 것을 본 받아 배우고 또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주 화요일 / 2월 19일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의 종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신 고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사무엘하 7:27)

“무언가 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말이 주는 감동을 느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대인이라는 이름아래 항상 바빠 무언가를 하고, 또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서 계속 무언가 할 마음이 생기도록 쥐어짜며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경쟁심이, 어떤 때는 성취욕이 순서를 정해가며 이 일, 저 일 할 마음을 만들어 갑니다. “아! 내 안에 무언가 할 마음이 생겼구나” 라고 알아채는 순간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제가 죽음의 두려움을 딛고 부활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것은 언제이실까요? 그런 마음이 태어나시면서 다 입력되어 있었다고 대답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 하시지도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시지도” 않은 분이십니다 (히 4:15). 목수로 사시며 이 일 저 일 주문에 맞춰 사셨을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알아채실 만큼 여유로우셨고, 자기 욕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셨던 기간은 광야에서의 40일이었을 겁니다. 그 기간동안 무언가 “할 마음” 이 생기게 된 메카니즘의 그 오묘함이야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어쨌든 “할 마음” 이 생기게 된 기적, 그 기적이 준 감동은 삼 년여 세월로도 희석될 수 없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셨지요. 40일 동안의 광야의 메카니즘은 조작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과 그 장소가 찾아왔을 때 나의 시간과 나의 터전을 버리고 그 시간과 장소가 준비된 메카니즘 안에 내가 있도록 자진하여 허락하는 것일 뿐...

(김영순 집사)

주님, 우리가 주님의 원하시는 때와 장소에서 당신이 원하시는 일을 “할 마음” 을 소유하게 하소서. 아멘.





사순절 둘째주 수요일 / 2월 20일

받았으니 줄 수 있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행전 20:35)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사랑하사... 주셨으니...

받은 줄도 모르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사 주셔서 받게 된 것을 제가 받을 만하여 받은 걸로 알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값이 비싸서 도저히 값을 치를 수 없는 까닭에 값없이 주신 것을 싸구려처럼 여기고 살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둔하고 눈이 무디어서 온 세상을 덮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그저 세상만을 보며 살았습니다. 주님이 하라 하신 것들은 미루어 두고, 나를 위한 것들만 하고, 세상이 좋아하는 일들을 하며, 갖지 못한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았습니다. 타협하고 물러서며 살았습니다. 물러서다 넘어지며 살았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듣고 그 이유를 깨달았으면서도 저의 마음이 완악하여 남의 일인양 생각하며 살았고, 저의 속사람이 게을러서 미루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믿지 못하고 남겨두고 모아두고 쌓아두며 가난한 자로 살았습니다.

저에게 족한 은혜는 그렇게 쉽게 잊으며 살았습니다. 곁에 계신 주님을 그렇게 무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몰랐습니다. 게을렀습니다. 잘못 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의 편에 서서 진정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꼭 잡고 있던 것들을 내려 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이제는 움켜 쥔 손을 펼칠 수 있는 사랑을 갖기 원합니다.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전심으로 영원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받았으니 줄 수 있게 하옵소서. 맡기셨으니 돌보겠습니다.
알게 하셨으니 온전하게 하옵소서. 나누겠습니다.
믿게 하셨으니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행하겠습니다.

고통과 한숨을 기쁨과 찬양으로 바꾸신 주님, 저 또한 다시 사신 주님의 선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 받길 원합니다.

Come, Thy Kingdom Come.

(김돈수 교우)





사순절 둘째주 목요일/2월 21일

하얀 눈위의 발자국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얼마 전 눈이 많이 내린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낡은 듯한 건물들과 어수선하게 느껴지는 길이었으나, 그 날 만큼은 새하얀 눈으로 덮힌 모든 건물들과 길가가 너무도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감동하며 아직 아무도 밟지않은 하얀 눈길에 저의 첫 발을 내디뎠을때, 내가 이 아름다운 눈길의 주인이라도 된 듯한 기쁨과 설렘도 있었고, 하얀 눈길 위에 만들어지는 나의 발자국들이 보여주는 나의 가는 길을 뒤돌아 보며 아침에 읽었던 위의 성경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새하얀 눈이 낡은 건물들과 어수선한 길가를 덮어 하얗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만들었듯이, 새하얀 눈처럼 아무런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못박히셔서 모든 고난과 수모를 겪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깨끗게 하여주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더없이 감사했습니다.

또한, 내가 이 하얀 눈길에 첫 발을 내디디며 나의 길을 만들어 나갔듯이,

이 크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삶의 길을 만들어 나가기를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신정희 교우)

저의 메마른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채우며, 하나님의 의가 되어 주님의 뜻을 받드는 주님의 딸이 되도록 저를 단련시켜주세요. 아멘.





사순절 둘째주 금요일 / 2월 22일

나 자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17)

예수님의 고난은 고상하고 신적(神的)이며 웬지 고통도 없어 보여서 우리에게는 그 현실감이 작게 느껴집니다. 배고파 주리시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슬퍼서 우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스러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찌보면 예수님께는 매우 자연스럽게 느껴질 때 조차 있습니다.

저는 가끔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 를 봅니다.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즐거워하시는 모습, 잡혀가시며 군병들에게 모욕을 당하며 구타를 당하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혀 괴로와 하시는 모습 등 예수님의 고난이 현장감 있게, 피부에 느껴지게, 몸서리 쳐지도록 잔인하게 다가오는 이 영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난들이 실제의 사건이며 또한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셨던 예수님께 크나큰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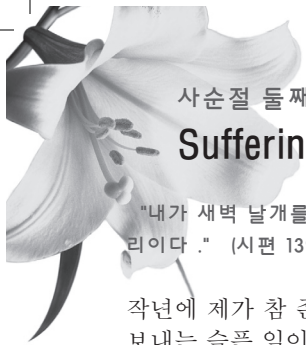
육신대로 살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며, 주위의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귀히 여기며, 주위에 만연한 사회의 악을 없애려고 나 자신을 희생하는 등, 나의 안위와 즐거움을 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허구나 환상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이같이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나 자신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손영권 교우)

하나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저의 십자가를 오늘 알게 하시고 제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세요. 아멘.





사순절 둘째주 토요일 / 2월 23일

Suffering God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찌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 139:9-10)

작년에 제가 참 존경하고 따르는 목사님 내외분께서 고등학교 3학년인 큰 아들 하영이를 하나님 품에 먼저 보내는 슬픈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외분은 물론, 하영이도 보기 드물게 순수하고 예수님을 닮고자 애쓰는 하나님께 헌신한 청년이었습니다. 기도뿐 아니라 늘 행함이 따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처음 소식을 접했을 때 정말 이해가 안갔습니다.

성품이 좋아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던 하영이를 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을까?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자 했던 총명하고 성숙했던 하영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일 큰 그릇인데 왜 그토록 일찍 데리고 가셨을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 작은 사고 하나 안 막으셨을까? 왜? 왜? 왜?

너무나 많은 질문이 쏟아졌고, 하영이의 부모님을 생각하니 가슴이 더욱 더 저려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부인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런 사건들 내지는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을 때가 종종 있는 듯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함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속 시원한 답을 아직 구하지 못했지만 이럴 때마다 한 교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상담사로 활동하시며 고통 받는 많은 분들을 보아오며, 그 교수님도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나 고민하시며 깨달은 것이라 하셨습니다.

예통하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날 때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곧 하나님은 “Suffering God” 이시라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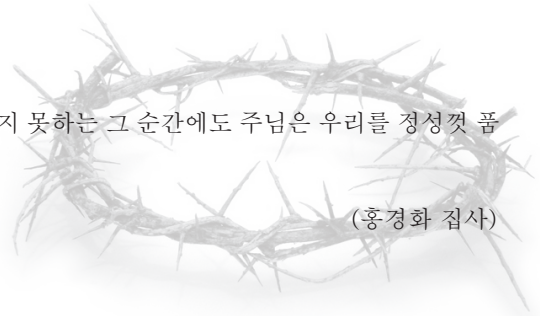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품고 함께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 바로 Suffering God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아셨고, 죄 많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친히 고통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삶 가운데서 나의 아픔을 어루어 만져 주시며 함께 고통 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안고 함께 울고 계심이 느껴질 때도, 혹은 나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고통의 끝이 승리임을 확신할 때도, 혹은 고통의 끝이 영영 안 오리라고 자포자기할 때도.
주님께 나의 고통을 올려드릴 때도, 혹은 주님과 고통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을 때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품고 계십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기에 내가 감정적으로 주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를 정성껏 품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홍경화 집사)



사순절 셋째주일 / 2월 24일

아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15)

우리는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다 압니다.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며, 한 점의 흠도 없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도 압니다. 교회에 나오면서 그렇게 들어왔고 배워왔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해서는 잘 알아 왔습니다.

너무나 거룩하고 전능하시며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시기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가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가까이 오면 우리는 잘못될 것 같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은 상상도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아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책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하여 들어서 알고 있는가? 우리는 교회에 나오면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주로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알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주 가깝게 만나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거룩하신 전능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더 이상 기록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아با입니다.

“아빠 제가 사랑해요,
아빠를 더욱 더 알고 싶어요,
아빠의 사랑을 더 받고 싶어요.
나를 더 사랑해 주세요 아빠.”

한국인의 정서상 마흔이 넘은 사람이 아버지를 아빠라 부르는 것이 좀 그렇지만, 저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러한 친밀함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일순간의 사건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하여야 하는 평생의 의무이자 숙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가깝게 다가가는 것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힘든 노력입니다.

(김만규 전도사)





사순절 셋째주 월요일 / 2월 25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8)

십구개월 된 아이 눈에는 세상이 온통 신기한가 봅니다.

뒤뚱 뒤뚱 아직 온전하게 걷지도 못하면서 한시도 쉬지 않고 이리 저리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천방지축 바쁜 아이는 위험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놀란 마음에 호통을 치게 되지만, 아이는 조막만한 얼굴에 눈물이 범벅되어 엄마 품을 파고 듭니다. 엄마의 화난 얼굴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말이지요.

그 아이를 품에 안고서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의심하고, 원망하며,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엄마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던 제 아이와는 달리, 믿음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이인 저를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제가 제 아이를 염려하고 사랑하듯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김경태 교우)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사순절 셋째주 화요일 / 2월 26일

사순절의 퀴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사야 53:5)

“현아야! 사순절이 뭔지아니?” 엄마께서 물으셨어요.
내가 대답을 잘 못하니까 엄마께서는 문제를 하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18-20장을 읽고 순서대로 맞추어 보라는 것이었지요.

여러분도 한 번 해보실래요?

- 1) 빌라도에게 다시 심문받으심
- 2) 신 포도주를 받으심
- 3)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 무덤에 장사지냄
- 4) 대체사장이 보낸 군인들에게 체포되심
- 5)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며 죽으심
- 6) 대체사장 가야바에게 심문받으심
- 7)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 8) 군병들이 가서 면류관과 자색 옷을 입힘
- 9) 십자가에 못박히심
- 10) 군병들이 옷을 예비뿔아 가짐
- 11) 군병들이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가 나옴
- 12) 빌라도에게 심문받으심

[답: 7, 4, 6, 12, 1, 8, 9, 10, 2, 5, 11, 3]

성경을 읽고 나서 순서를 맞추니 쉬웠어요.

엄마께서 물으셨어요. “무슨 내용이니?”

음.. 성경을 읽어가며 문제를 맞추고 보니 그건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이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셨을까 생각했어요.
사순절은 40일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기간이라고 해요.

나도 숙제가 힘들어도, 피아노 연습이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잘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놀아주고 도와주는 착한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김현아 어린이, 6학년)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신 것 같아요. 나도 예수님을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아멘.





사순절 셋째주 수요일 / 2월 27일

어머니의 다이아 반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요 16:32)

아내의 보석함 속에서 한지로 곱게 싸인 반지 한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다지 값나가 보이지는 않았지만 모양은 조금 특이했습니다. 그 반지는 속이 빈 하트모양의 금반지로 안쪽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내 기억을 어느 청명한 늦가을 오후의 그 산(山)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그 곳은 몇 년 전 어머니를 아버지 곁에 모신 산입니다.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위암으로 쓰러지신 것은 희귀한 혈액 암을 앓던 어머니를 위해 이 병원 저 병원으로 찾아다니시던 중이었습니다. 결과는 수술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말기 위암. 그 후 반년간 아버지의 항암치료와 마침내 안수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가족들 특히 병든 어머니에게는 참으로 감내하기 힘든 시기였습니다.

깊은 밤 병실에 나란히 누워 낮은 소리로 끝없이 이어지던 두 분의 대화를 나는 종종 듣게되었습니다. 조용조용 이어지던 목소리는 간간히 짧은 웃음과 이어지는 긴 울음... 지나온 일생을 돌아보며 얼마 남지않은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사대독자에 멧쟁이 은행가이셨던 아버지와 신여성 어머니의 달콤한 신혼은 그 시절 모든 우리 부모님들처럼 광복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산산히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 다섯 아들을 낳아 기르기 까지 어찌 그 손과 눈에 물 마르실 날이 있었으며, 수 십 년을 함께 한 부부에게 어찌 회한과 원망이 없을까 마는 이야기는 때로 격랑을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건 세상을 떠날 사람과 남겨질 사람의 안타까움, 아마도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몇 일간 어머니께서는 아버지를 원망하셨습니다. 언젠가 들었던 그 이야기,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해주마 약속했던 ‘다이아 반지’ (diamond ring)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얼마든지 살았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꼭 남편에게서 받고 싶으셨던 겁니다. 사대독자 집안에 시집와 오형제를 낳아 키워냈으니 하시던 뭐 그런 이야기였는데, 이번엔 좀 완강하셨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한 아들에게 넌즈시 하나 사오라고 연락까지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러나 끝 다 부질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갑자기 진행된 아버지의 병환은 의식을 무의식의 영역으로 그리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한 동안 떠들썩하던 주변이 잠잠해지자 무서운 침묵의 밤들이 견딜 수 없이 고통스럽게 이어지게 되었고 새벽이면 어김없이 이어지던 어머니의 기도도 웬지 힘을 잃어가고...

부쩍 힘겨워하시고 며칠간 별로 말도 없으시던 어머니께서 나를 채근하여 아버지 산소로 길을 떠난 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그 해 가을 어느 휴일 오후였습니다. 휘적휘적 거는 쓰러질듯 그 곳에 이르신 어머니께서는 결국 참고 참아온 눈물을 하연없이 쏟으셨습니다. 들썩이는 가냘픈 어깨 위로 크리스탈 빛 가을 태양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하산길, 석양에 반사되어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앞 발밑에 띄었습니다. 어 반지?... 어느 젊은 여인의 것이었을까? 작은 다이아몬드가 안에 부착된 하트 모양의 금빛반지였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손에 그 반지를 끼워보니 신기하게도 딱 맞았습니다. 그때 얼핏 스치는 미소와 함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가 주신게야...”

그날 이후 어머니께서는 기적적으로 기운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셨습니다. 물론 그 어머니의 다이아몬드 반지는 언제나 어머니 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돌아가시던 그 날까지... 당신은 아무 말도 안 하셨지만 나는 알았습니다. 그 반지를 아버지의 선물이라고 진심으로 믿으셨다는 걸... 또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고독의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 나를 잊지않고 ‘함께(동행)’ 한다는 믿음을 통해 진정 큰 위로를 받는다는 걸...

(지 훈 집사)



사순절 셋째주 목요일 / 2월 28일

When God speaks through our children

“And he said: ‘I tell you the truth,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 (Matthew 18:3)

One night, I was pounding on the keyboard of my computer downstairs. An important deadline was coming up at work the next day. It was already 10:30 at night and I still had hours of work left to do. I was irritated by the fact that I had to work all night and didn’t want any interruptions. That’s when my 9 year old daughter came into the room with a children’s Bible in her hand.

She said with a bit of a worried look on her face, “Daddy will you read the Bible with me right now?” Without much thought, I replied, “No honey, daddy’s really busy right now, Can you read it by yourself?” “But, daddy, I want to read it with you,” she complained. “I really don’t have time tonight. PLEASE go read it by yourself,” I said firmly.

It was at that moment, tears rolled down her eyes. I felt bad almost instantly. How could I not spare some time to read the Bible with my child? But, what came out of her lips next, completely blew me away. All choked up with tears, she said. “But, daddy... They told me at church that you have to read the Bible everyday. But you don’t do that...” With a slight pause, she sobbed. “I want you to go to heaven, daddy. I don’t want to be there without you.”

God teaches us and leads us in many ways. In my case, he does so often through the words and actions of my children.

박성준 집사
(Sung-Jun Pak)

O’ God, let me have enough wisdom to listen to them when God speaks through them. Amen.





사순절 셋째주 금요일 / 2월 29일

저의 빛이 되신 주님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4-5)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항상 든든합니다
제가 죄인이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제 영혼이 고단치 않게 합니다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병중에도 담대하게 해주시고
기쁨과 은혜를 알게 해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갖게 합니다

주님의 빛이 찬란하게 광채가 날때엔
주님이 너무도 가깝게 계심을 느낍니다
너무 너무 어두워 넘어진 것도 모르고 사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주님의 빛이 제 마음에 있어
저는 늘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김종희 집사)

주님이 바라시는 빛으로 머물수 있도록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사순절 셋째주 토요일 / 3월 1일

내 마음까지 내려 놓아야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

오늘 아침도 제대로 눈도 뜨지 못한 알리야는 “Let’s go Mommy, Wake up” 을 외칩니다.
그리고는 작은 눈을 부비며 토닥 토닥 발소리를 내며 세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참 신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세살박이 알리야의 앞엔 매일 아침이면 너무도 신이 날 하루에 대한 흥분으로 들떠 있습니다.
알리야는 오늘도 참 바쁩니다. 일주일에 세번 프리 스쿨도 가야하고 엄마랑 시장도 가야 하며 좋아하는 Dora TV 프로그램도 봐야합니다. 가끔씩 아이스크림을 먹거나 놀이터라도 다녀오는 날이면 정말 최고의 시간을 보냈듯 너무나 만족해하며 잠자리에 듭니다.

반면 아이들과 하루 종일을 보내야 하는 저에게는 시간에 맞춰 학교에 데려다 줘야하고 시장도 봐야 하며 아이들의 TV시간과 싸워야 하는 바쁘고 힘든 시간들로 ‘오늘도 전쟁같은 하루였다’ 고 생각하며 지친 하루를 접습니다.
하루 종일 종종대며 제대로 자리에 앉아 보지도 못한 채 엄마로, 아내로, 급한 회사일까지 정말로 많은 일을 했는데도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몸이 피곤한 만큼 마음은 가벼워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부족합니다.

아이들과 나의 하루를 보며 하나님은 우리가 “더 많이 했나, 더 빨리 했나, 더 생산적이었나” 를 보시기 보다는 “얼마나 기뻐했나, 얼마나 감사했나” 를 보시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주님, 나의 바쁜 마음을 당신 앞에 내려 놓길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시간 기쁘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늘 더 잘하러 애쓰는 내 모습이 나를 더 지치게 하고 또 보시는 하나님을 안타깝게 헤드리지는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이 완벽하게 수학 문제를 풀어낼 때보다 밖에서 뛰놀며 깔깔거리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훨씬 더 푸근하게 차오르듯이...

당신이 주신 삶을 그저 귀하게 여기며 “기쁘게, 신나게” 사는 걸 좋아하시지 않으실까?

내가 다 해내야 한다고, 잘해야만 한다는 내 마음까지 내려 놓아야만 내 시간들이 훨씬 더 풍족하고 내 마음의 목마름이 가시지 않을까?

시간을 내어 기뻐해야겠습니다. 삶의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목숨 값으로 받은 귀한 시간이기에...

하나님, 참 좋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보라 집사)





사순절 넷째주일 / 3월 2일

광야로 나간 주님을 따르는 기도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사십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마태복음 4:1-2)

40일 동안의 고난 주간에 우리 주님이 지나간 고난의 길을 따라가 봅니다.
이땅에 가장 낮고 빈약하기 그지없는 말구유로 오실때 부터,
겻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골고다 까지의 모진 수모와 고난의 길,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를 위한 고난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40일 광야에서의 금식과 기도, 시련과 사탄과의 싸움,
우리의 고난을 인간의 몸으로 몸소 짊어지시고 이겨내신 주님을 봅니다.
신기루만을 따라가다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헤메며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은 연민의 정으로 바라보시고 계심을 느낍니다.
어디에 갔다가 이제야 오느냐고...

어느 분의 명상기도가 광야에 서있는 나의 빈 가슴을 채워 줍니다.
"광야가 아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친구가 되어 주시며 그 분의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러나 보이고 들리는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다른 소리가 들리지 않기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소리는 크고 또렷하게 들립니다. 광야에는 친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과 친구가 됩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찾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고난을 허락하시며, 이를 통해 주님이 원하시는 축복을 더해주시심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을 고난을 통해 광야로 이끌어 내십니다. ... (중략) .. 따라서 내가 지금 있는 광야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바로 나를 살리는 곳입니다. (2007년 11월 생명의 삶에서)”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을 바로 깨닫지 못했지요.
나도 마찬가지로, 광야의 고난 속에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바로 보지 못하고,
나의 집을 주앞에 내려 놓지 못하네요.

주께서는 분명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찌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는데도. . .

주여,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게 하소서.
푸른 초장에서 나의 목자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김정선 장로)



사순절 넷째주 월요일 / 3월 3일

징계(Chastening)와 연달(Training)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히브리서 12:11)

허물을 뉘우칠 수 있는 징계의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이 없고,
작은 씨앗을 땅에 뿌렸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여름동안 퇴비를 주고 김매며 비가 내린 후에 밭에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것 같이
저희들의 뉘우침과 기도가 큰 열매를 맺도록 도와 주시옵고,
지난 날의 잘못을 뉘우치면 의의 평강한 열매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하여 주시옵소서.

(장중문 집사)

계으름 피운 것과 정당한 방법보다 편리한 방법만을 택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주 화요일/3월 4일

나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간

“이제라도 진심으로 뉘우쳐 나에게 돌아오라. 단식하며 가슴을 치고 울어라. 옷만 찢지 말고 심장을 찢고 너의 하느님 아
훼께 돌아오라.” (요엘 2:12-13)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써 우리의 영적 갱신을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고난의 길을 따르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 발치에서 구경꾼의 한 사
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 모두가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함께 동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길은 크리스찬이 가야 할 길과 같습니다. 주님이 말씀 하시기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고 하셨는데 주 안에 있으면 주가 가신 길을 어찌 내가 가지 않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들만이 그의 부활에도 동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
은 주님의 부활을 구경하는 관객으로서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내 속
사람이 부활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순절은 괴롭고 고된 시기가 아니라,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은총의 시기입니다. 이
제까지 자기 중심적으로 지상의 목표들을 위해 노력해오던 생활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활로 돌아가도
록 노력합시다.

(박은영 교우)

주님, 제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주 수요일 / 3월 5일

사랑을 힘써 나누기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요한일서 4:11)

몇해 전 친구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소개하려 합니다.

우리 몸안의 혈액에는 적혈구와 백혈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혈구는 우리 몸안으로 병원균이 침입해오면 얼른 그 침입자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혈구가 일처리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커다란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백혈구는 아주 강력한 방법을 쓸 것 같지만, 그저 침입자에게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가슴을 활짝 열고는 아주 깊은 사랑으로 감싸 안아줍니다.

백혈구에 안겨버린 그 병원균들은 그런 사랑을 한번도 받아 본 적이 없으니 그 사랑에 감격해서 녹아버리는 겁니다.

조금 모자란다고, 지저분하다고, 보기 싫다고 가리지 않고 백혈구는 사랑으로 감싸 줍니다.

적혈구 또한 아주 사랑이 넘치는 친구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몸에 있어 산소는 정말 중요한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혈구는 이리저리 다니며 산소가 필요한 곳이면 아낌없이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 줘버립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도 남기지 않고 100% 다 줘버립니다.

그리곤 4일쯤 살아 있다가 조용히 숨을 거둡니다.

주님, 저희의 한없이 이기적인 생각들을 깊이 회개합니다.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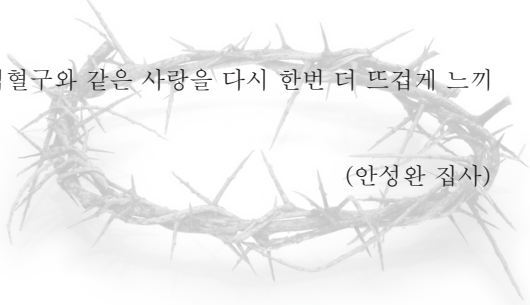
백혈구, 적혈구는 인간들이 하는 계산적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런 사랑을 할 줄 아는 작은 생명들이 모여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는 바로 이러한 사랑을 할 능력이 개개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 사랑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저 한없이 이기적이고 나쁜 성격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예 포기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올해 은혜마음을 통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요일 4:11)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약간은 당황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부부가 당황했던 이유는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백혈구, 적혈구와 같은 사랑을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느끼고 그 사랑을 힘써 나누길 소망해봅니다.



(안성완 집사)



사순절 넷째주 목요일 / 3월 6일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1)

우리가 당할 조롱을 대신 당하시고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맞으시며, 우리가 저야 할 형벌을 대신 지심으로 절망과 사망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며,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삶이 새로워지며 세상과 죄악을 이길수 있는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랑을 입고도 여전히 불의와 짝하며 죄와 허물 속에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날마다 저희들을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말씀하신 대로 제 십자가를 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욕의 못된 성품을 버리고, 그리하여 내 뒤편으로 맡겨진 십자가의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빛난 면류관을 받기까지, 십자가의 의미와 대속의 사랑을 절망과 죽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피고 험한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옵소서. 고난의 계절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더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게 하옵시며 감사와 아울러 진실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참된 인식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참 믿음의 길을 깨닫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교회와 저희들 속에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와 사랑을 세상 중에 증거하게 하소서. 그리고 고난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수고와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김길람 장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무장시켜 주옵소서. 아멘.





사순절 넷째주 금요일 / 3월 7일

다시 온 사순절을 생각하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에스겔 11:19)

내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다라면,
황금 망토에 면류관을 쓰고 드높은 옥좌에서 세상을 호령하였겠지요.

내가 당신과 같이 죽은 자를 살리고, 눈먼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의 능력을 지녔더라면,
성전 앞 넓은 광장에서 만민에게 자랑하며 증거했겠지요.

내가 이 세상 마귀와 대적할 힘이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물리치고 온 세상을 얻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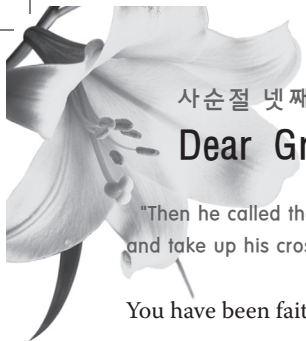
이 세상 권세와 명예와 금은 보화를 마다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기는 고통과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 당신 사랑의 크기를...
나는 아직도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사순절이 돌아올 때는...

(고진수 집사)

세상 권세와 명예와 재물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아멘 .





사순절 넷째주 토요일 / 3월 8일

Dear Gracious Father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If anyone would come after me, he must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 (Mark 8:34)

You have been faithful beyond compare and we thank you for your unending grace and presence in our lives.

Whether we realize it or not, whether we recognize it or not, your hand is upon our lives and the lives of every one of your children. We confess that all too often we reject that hand, turning away from you. We have tried to direct our own lives, to solve our own problems, only to find ourselves begging for your grace again and again.

Lord, forgive our pride and vanity. We are utterly and completely dependent on your provision, why should we attempt to claim glory for that which you ultimately bestow upon us? Please humble our hearts before you.

Lord, you called us to serve you by serving the "least among us." You told us that one day you would ask us how we fed you, clothed you, visited you in prisons, and took care of you when you were sick. Let our hearts not become so small, so cold that we cannot see the face of Jesus in the needy around us, the poor and the homeless.

Open our eyes to the world that you see, open our hearts to feel the cries of your children, and use our hands as your instruments of peace and comfort in this world.

Lord, this Lenten season is another occasion for us to reflect on the life, work, and sacrifice of your Son, Jesus. Instead of asking ourselves, "what would Jesus do?" let us instead ask, "what would Jesus have me do?" Jesus lived

.Let the world know we are Christians by our love, and make us the salt and light in the world. Amen.



and walked among us, he spared no amount of love and compassion. But we are impatient with others, insensitive and petty. Help us repent in our hearts that we might turn from our sinful inaction and move our spirits to act as disciples once again.

In the promise of Easter, of resurrection, we put our hope. That one day we would also be heirs to the Kingdom. However, Easter has come, and the Kingdom has come. Jesus is risen, and yet we act as though it is just a theory, an idea of a far away place and time. Instead, Lord, let your Holy Spirit fill our hearts with the faith that we are living our eternal life right now. We are one with your Son. We must always draw our confidence, joy, and identity from that truth.

Lord, this year will mark many changes in our families, our church, our country, and our world. May we become good and faithful servants, using our talents to be a blessing to all.

In Christ's name we pray, Amen.



(백승한 집사)



사순절 다섯째 주일 / 3월 9일

깨어진 마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 17)

주님! 주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셨음으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하신 것을 저의 생각으로는 알지만 이웃을 돕고 사랑하는 댓가로 원망이 돌아올 때 마음으로는 무척 화가 나고 화를 내면 죄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화를 멈추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할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님, 회개하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해 주실 것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은 머리에만 머물고, 마음속으로는 미움으로 상한 가슴이 계속 피를 흘리며, 도움을 받고서도 화를 던지는 이웃이 원망스러워집니다.

하오나 자비하신 주님께서는 저의 이 피나게 터진 가슴을 멸시하지 않으실 뿐아니라 죄 없으신 주님 손의 못 자국에서, 옆구리의 창 자국에서 흐르는 피를 보시며 “너희 터진 가슴이 이 피를 닦지 않았니?” 위로하실 때,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주님 이름으로 용서하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 용서는 네가 그 이웃을 용서할 때 발효될 것이야!”

주님 제 가슴에 피를 흘리는 것이 제 죄가 아니라, 저의 아픔이 아니라, 주님의 피, 주님의 아픔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제 가슴이 찢기는 아픔이 주님의 고난을 증거한다면 기쁨으로 주님의 산 제물이 된 것을 감사하겠습니다.

입술과 마음뿐 아니라 온몸과 영혼으로 이웃 사랑하다가 고난 받는 것, 주님 사랑의 증거이니까, 그래서 주께서는 내 깨어진 마음을 사랑하신다고...

(홍경자 장로)

주님, 저희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저를 감싸며 아픔을 평강으로 바꾸는 기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월요일 / 3월 10일

아픔과 고통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로마서 5:3-4)

지난 7월말에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크게 앓으며, 힘들게 몇 달을 지냈습니다. 지금까지 별다른 몸의 큰 고장없이 지내왔기 때문인지, 이번의 이 일을 겪으면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이 얼마나 참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란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한참 괴로울 때는 그저 모든 것이 짜증나고, 불평, 불만인 채, 안절부절 못하며,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무언가 너무 갑갑하고 변화가 필요한 것 같아, 지친 몸을 이끌고 교회로 갔습니다.

찬양대석 위에 있는 유리창이 아침 햇살에 유난히도 환하게 밝아 보였고, Stained Glass에 그려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눈에 들어 왔습니다.

갯세마네 동산에서, 슬픔과 번민속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후 십자가가 연상되고, 주님이 당하신 그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생각되며,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주님은 나를 가만히 내려다 보시며, "나는 네 아픔을 다 알고있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내 마음속에 가득했던 모든 짜증과 불평, 불만이 천천히 사라져감을 느끼며 기도드렸습니다.

(김성빈 장로)

주님,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아픔과 고통의 선물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화요일 / 3월 11일

고통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여호와와는 마음이 상한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18)

하나님, 우리에게 소중한 삶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그 삶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살아가면서 사실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두려운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들 때에도 의연한 척 해야 할 때도 많았습니다.

돌아와 주님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주님, 우리를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 하나 스스로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끝없이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미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 함께 하고 계셨던 주님을 발견하고 느끼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삶이 주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가치있고 복된 삶인 것을 깨닫고,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주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들 각자가 지고 있는 삶의 무게가 있습니다.
주님, 고난을 이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티끌과 같은 우리들 각자의 고난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 겪으셔야 했던 가능할 수 없는 고난의 크기를 짐작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할 수 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늘 우리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왔을까를 생각하며 힘들어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고난이 나의 인생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먼저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은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십시오.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세상과 구별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다시 각인시켜 주시려는 주님의 숨은 뜻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해주시길 원합니다.

(서민정 집사)





사순절 다섯째주 수요일 / 3월 12일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 . .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베드로후서 3:18)

사순절의 의미를 묵상하다가 사순절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께서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침 뱀음의 수모와 고통의 채찍을 맞으셨고 온 몸의 피를 쏟으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살을 찢는 십자가 위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강도의 회개를 받으시고 용서하셨으며, 또한 그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도 무지한 인간의 허물을 용서해 달라시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삼일 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영원한 삶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당신이 경험하셨던 피조물의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대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저지르는 셀 수 없는 잘못을 용서의 눈물로 기도하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잠잠히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길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알아가는 시기로 채워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하고, 불순종과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주님에 대한 감사함의 표현으로 세상 즐거움을 절제하고 금식해야 하는 사순절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이유인 평화와 사랑을 위해 사는 사순절이기를 원합니다.

(정광근 교우)

사순절의 기도가 채워져 가는 동안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저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목요일 / 3월 13일

나의 모습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시편 51:2)

매 주 주님께 나아가
또 다시 지은 죄를 고백하고
눈물로 다짐해 보지만

돌아와
'나' 라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모습으로
여전히 같은 죄의 자리에 서있음을 발견합니다.

이런 나약한 저를 위해
고난을 택하셨던 주님을 생각해봅니다.

내 부모님께,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하옵소서.
당연히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당연하다 느끼는 그 소중한 것들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김희정 집사)

저희들에게 값없이 주신 많은 것들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다섯째주 금요일/3월 14일

주님께 아버님을 보내드린 후...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사도행전 2:24)

아주 오래전 나의 형제는 3자매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늘 아들을 기다리시다가 드디어 제가 14살 되던 해에 막내 아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이 있고서도 아빠는 언제나 가족이 나중이었습니다. 당신 한 분 원하시는 대로 하시고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빠는 위암 수술까지 받으셨고 그 어려움 속에 우리 가족은 막내 남동생을 키웠습니다. 그때 미국에 계신 고모님께서 아빠를 요양해 드리겠다고 초청하셨고 형편이 어려운 우리집은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가 대표로 아빠를 모시고, 미국에 발을 디뎠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아빠를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 우리 가족은 미국에서 다시 만났고 지금은 시민권을 땀지만 아빠는 다시 위암 재발로 한달을 넘기기 어렵다는 통보를 제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던 날에 받게 되었습니다. 그후로 아빠는 병원으로 들어가셨고 내내 우리집을 가보고 싶다고 하신 아빠는 한달이 넘어 1년을 지내시면서 주님을 영접하셨고, 감사와 찬송 그리고 주님 품에 가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죽어서 자식들에게 폐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씀과 교회묘지까지 사 놓으신 아빠는 화장을 원하셨습니다.

아빠가 꿈에 천사를 따라 날아가고 계셨고, 나는 울고 있는 꿈을 꾸다가 전화소리에 깨었습니다. 아빠의 소식이었습니다.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뉴욕까지 어떻게 달렸는지 모릅니다. 돌아가신 아빠의 모습을 상상하며 무서울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빠를 보는 순간 이제 다시는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아빠를 보고 아빠의 손을 부둥켜 안고 아버지라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아버지! 이제까지 저 때문에 속상하셨던 것 용서하세요. 이제 아빠가 아닌 아버지를 주님께로 보내드리니 감

주님! 사순절에 바램이 있다면 우리도 그 아픔을 잘 인내하게 하소서. 아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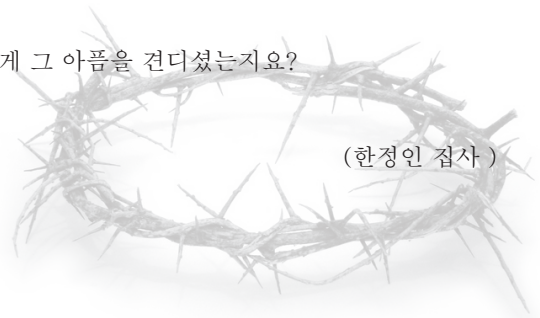


사합니다. 세상의 고통때문에 힘들어 하셨는데 아픈데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저로 인해 힘이 드셨고 저는 아버지로 인해 지난 오랜 시간 힘들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의 표정은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오랜 병고 끝이라 보기 힘든 모습일거라 생각한 가족들도 놀라우리만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아버지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우셨습니다. 화장터에서 마지막 불을 당기는 차례가 되었습니다. 가족 중 어느 누구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제가 하겠다고 자청하였습니다. 미국으로 모시고 온 것도 저이고 천국으로 모시는 것도 제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장례식은 믿음의 식구들의 따뜻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폭풍이 불어와도 나는 주를 위해 날으리라는 찬양을 생각하며 나 돌아갈 그 집에 아버지께서 먼저 가 계신다고 생각하니 포근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아버지는 나에게 아버님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떠날 수 있는 최고의 명칭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며 절제와 용서, 인내와 사랑이라는 긴 터널을 빠져 나왔습니다.

주님! 잠깐뿐인 이 세상의 이별도 이렇게 아픈데 주님은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는지요?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한정인 집사)





사순절 다섯째주 토요일/3월 15일

친구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 3:17)

언제들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말, '친구'. 어느 정도 가까운 사이라면 쉽게 친구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진정한 친구라 칭하려면 보통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누군가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기 위해 가져야 할 '그 무엇'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도 '신뢰'라고 답할 것입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믿을 때, 서로에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길 수 있을 테니까요.

한살 두살... 나이가 더 들면서 진정한 친구를 만나기가 점점 더 어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아니, 있던 '친구'마저도 소원한 관계가 되어갑니다. 모든 것을 바쁜 일상, 각박한 세대 탓으로만 돌리며 스스로를 위로하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의 문제점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런 때에 마음에 딱 와닿는 찬양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가사에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You know all about me, the good and the bad
You know when I rise and fall
You see my beginning
You stand at the end
And yet You remain faithful to say I'm your friend

하나님. 행함으로 의롭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받은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나에게도 행동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내 삶의 매순간 함께 하시는 주님.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내 삶의 한 가운데 계시며, 나로 인하여 기뻐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 많은 죄와 허물을 지닌 나를 친구로 삼아주신 주님.
그리고 그런 못난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를 돌아봅니다. 누군가에게 '친구'라 불릴 자격이 있는지...
합격점을 받기는 힘들듯 합니다.

하지만 이제 간구합니다.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익숙해지는 나로 변화되도록...

나의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께 간구합니다.



(최현구 집사)



고난.종려주일/3월 16일

평화와 사랑의 왕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누가복음 19:38)

갈릴리와 베뢰아 지경에서 전도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은 생애의 마지막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입성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특별한 의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껏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수 많은 사람들이 겼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는 아람어에서 온 말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간구하는 짧은 기도("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시편118:25)에서부터 유래된 것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유월절 제사를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대략 27만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며 '호산나'를 외친 것은 그들이 얼마나 구원자를 찾고 있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런 열망속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시려 하십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겸손을 상징하는 어린 나귀새끼를 타심(슥9:9)으로 진정한 구원자는 평화의 왕, 사랑의 왕이어야 함을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인생이 평화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경쟁, 다툼, 시기, 그리고 미움이 판을 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추구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겸손의 본을 보이신 주님처럼 우리 삶의 길치레, 가식, 높아짐에 대한 열망을 내려놓고, 나귀를 타고 오신 주님을 목상하며, 낮아지고, 겸손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나그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허신영 목사)





고난주간 월요일 / 3월 17일

사순절 단상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13)

며칠동안 가슴은 답답하고 머리 속은 헝클어진 실타래처럼 복잡한 생각에 우울한 날들을 보내다 문득 한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차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시간을 갖고 기다려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불안해서 막연히 시간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 때 마음 속에서 나를 위로하는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 13)

그동안 마음을 짓눌렀던 많은 문제들 때문에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인내는 참고 견디는 것이지만 소망이 없는 인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어려운 문제에 부딪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려고 생각을 명랑 모드로 바꿉니다.

(김용희 집사)

하나님, 인내 안에 감추어진 승리의 약속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화요일/3월 18일

치유를 위한 기도

"여호와와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121:5-6)

부활주일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난 삶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는 항상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이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과 은총이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과 밝음과 성공과 기쁨속에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앞날에도 어둠과 절망과 실패와 슬픔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과 능력이 있기에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희망이란 영원히 고통을 받지 않으리라는 내재적인 인식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에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고 굳게 믿음으로 희망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Wayne W. Dye).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부활 안에서 희망이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진다면, 절망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생이 아름다운 노래와 같이 흐를 때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 속에 모든 일이 어둠과 죽음같이 잘못되어 간다해도 미소짓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진심으로 가치있고 힘 있는 사람입니다(살전 5:16-18, Ella Wheeler Wilcox).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 소리에도 귀 기울이시고 조용히 속삭이십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넌 극복해낼 수 있어!" 그칠줄 모르시고 속삭이십니다. 생명과 부활이 있는 한 희망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보다도 더 외롭고 슬프며, 춥고 절망적인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분의 영혼이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 드립니다.

(강길원 장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과 은총으로 절망과 아픔 속에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3월 19일

하나님의 웃음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골로새서 2:12)

왜 루터교에서는 부활절에 조크를 하는 설교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악의 세력에 대한 승리입니다. 죽음까지도 무색하게 만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는 하늘의 한 모퉁이에서 나란히, 아니 어찌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서 온 우주를 흔드는 통쾌한 웃음으로 웃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멋진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집니다. 삶의 짧고 긴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음을 넘어선 자들의 이 통쾌함을 생각하면 심각한 것, 문제 투성으로 보이는 것들, 하물며 죽음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년에 한번만이라도 이 세상의 것들로부터, 죄노애락의 그 모든 것들로부터 떠날 수 있는 자유를 깨닫게 하기 위해 하루가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늘 이날처럼 가볍게 살아가면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넘칠 것입니다. 살아 있음에 보고 숨쉬고 느끼는 것에 감사해 합니다.

절대적인 것을 소유한 마음 안에 천국이 있듯이 이 마음을 들여다보는 여유를 잊지 말기를 기도해 봅니다.

(이선영 장로)

부활을 붙들며 하루 하루를 웃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1년을 그렇게,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아멘.





고난주간 목요일 / 3월 20일

동주 형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리어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가복음 14:34-36)

동주 형,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 당시에 우린 형을 그렇게 불렀어요. 신과대 앞 형의 시비앞을 지나칠 때마다, 만져 보고, 감격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 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제는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요사이눈 눈이 많이 오시네요. 눈내린 밤이면, 눈이 부시고, 형의 ‘서시’ 가 참 어울리는군요. 한동안 잊고 지내던 형의 시, 간신히 힘들여 다시 외웠어요. 외우면서 형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맑은 날이니, 밤 하늘에 바로 형의 그 별이 새삼 반짝일 겁니다. 난 그 별을 다시 찾을 겁니다. 내 아이의 손을 잡고. 나뭇잎 다 떨어져 버린 그 벗은 나무가지 사이로 찬 바람이 소리내며 지나가겠지요. 그 별과 함께 달도 보이려나.

동주형, 부탁이 있어요. 형의 말처럼, 시처럼 살고파요. 기도해 주세요. 별을 헤이면서,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이 살고 싶습니다. 동주형이 꿈꾸던 그런 길을 나도 가고 싶습니다. 생명이 있어 죽어가는 모든 것들을 위하여 사랑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예수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오늘 밤에도, 흰 눈위로 따뜻한 바람이 선배의 입김처럼 지나갑니다. 대신, 찬바람 대신...

(김화옥 집사)

주님, 당신의 길을 따라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성 금요일 / 3월 21일

You Took My Parking Space at Church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누가복음 23:34)

One day, a man went to visit a church, He got there early, parked his car and got out. Another car pulled up near the driver got out and said, " I always park there! You took my place!"

The visitor went inside for Sunday School, found an empty seat and sat down. A young lady from the church approached him and stated, "That's my seat! You took my place!" The visitor was somewhat distressed by this rude welcome, but said nothing.

After Sunday School, the visitor went into the sanctuary and sat down. Another member walked up to him and said, " That's where I always sit! You took my place!" The visitor was even more troubled by this treatment, but still He said nothing.

Later as the congregation was praying for Christ to dwell among them, the visitor stood up, and his appearance began to change. Horrible scars became visible on his hands and on his sandaled feet. Someone from the congregation noticed him and called out, "What happened to you?"The visitor replied, as his hat became a crown of thorns, and a tear fell from his eye, "I took your place."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대신하신 것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아멘.



당신이 교회 주차장의 내 자리를 차지했어요.

어느날 한 사람이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는 일찍 가서 차를 주차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어떤 차가 운전자의 옆으로 다가오며 말하기를 “나는 늘 이자리에 주차합니다.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했어요.”

방문자는 주일학교를 가기 위해 안으로 들어갔고, 빈 자리를 발견하고 그 곳에 앉았습니다. 한 젊은 여인이 그에게 다가와 말을 합니다. “그곳은 제 자리에요. 당신이 내 자리를 차지했군요.” 방문자는 불친절한 환영에 기분이 상했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일학교 후에 방문자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다른 교인이 걸어와 그에게 말하기를 “그곳은 내가 늘 앉는 자리인데 당신이 차지했군요.”

방문자는 이러한 대접에 더욱 불쾌함을 느꼈지만 그래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후, 교인들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길 기도드렸고, 그 방문자는 일어섰는데 그의 모습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흉칙한 상처가 그의 손과 그의 샌달 신은 발에 뚜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교인중의 어떤 이가 그러한 그를 알아보고 “무슨 일이에요?” 물었습니다. 방문자가 대답할 때, 그가 쓴 모자는 가시 면류관으로 변하고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릅니다. “내가 너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인터넷에서 퍼온 글)



성 토요일 / 3월 22일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16)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다시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주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정도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한없이 무한하게 사랑하십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게되는 사실이지만, 십자가의 주님을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곧잘 잊어버리고 저는 또 다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수 많은 죄를 짓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며 또 주님을 실망시켜드립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렇게 나약하고 완벽하지 못한 제 자신에게 실망했고 혹 이렇게 자꾸 실망만 시켜드리면 주께서 저를 버리시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면 욕을 하고 떠나는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안들거나 실망을 시키면 화를 내고 떠나는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실패하고 능력이 없거나 인정받지 못하고 힘이 없을때 소리없이 떠나는 사람들의 사랑과 같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계속 불러주셨습니다.
삶에 지치고 화가 나고 부끄러워 교회에 가지 못할 때, 친구의 손에 이끌려 교회에 온 것처럼...
실패 앞에 불안해 하고 걱정하고 고민했을 때, 끝없는 위로의 말씀과 응원의 말씀을 들려 주신 것처럼...

항상 기다려 주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그리고 죄인인 저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잊지 않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세요. 아멘.



외롭고 슬퍼서 밤새 눈물을 흘렸을 때, 동역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비바람과 폭풍우를 맞으며 위험한 길을 지날 때, 그 길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그리고 자꾸 죄 짓는 나약하고 한심한 제 자신을 보고 쓰러질 것 같을 때, 제 이름을 아시고 제 모든 생각을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은 제가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을 정도로 제가 상상하기에는 너무 벅찬 만큼 저를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살아계시고 항상 제 곁에서 저를 지켜보시고 계시는 주님, 그 분은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계십니다.

(김다희 교우)





부활주일/3월 23일

부활의 향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찌어다 ." (요한복음 20:18-19)

어둠과 슬픔, 절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절 아침...

이 부활절 아침이면...
성전 안을 가득 메운 백합화의 향기
그 예수님의 부활의 향기가 우리의 온 마음과 몸을 적시네.

이 부활의 향기가 호흡을 통해 스며들어 올 때면
우리의 온갖 슬픔과 절망, 어둠과 고통은
주님의 향기 안에서 녹아나고, 스러지네...

절망과 자책의 고통,
가난과 질병의 고통,
외로움과 상처로 인한 고통,
아픔과 상실의 고통을 안고 주님 앞에 가져온 우리들의 백합화들...

부활의 주님, 우리 삶에 소망과 기쁨을 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 백합화들은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여,
이 부활절 아침,
무덤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의 향기 안에서
기쁨으로, 소망으로 녹아나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변화되어 아름다운 향기가 되었네...

기적이 일어난 이 영광된 부활의 아침,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으로 얼룩진 마음 밭을
백합화의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 차게 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아름다운 향기로 우리 맘을 가득 메워주시고,
이 소망과 기쁨의 향기를 머금고 또 한 해를 살게 하시네...

그래서 부활의 향기에 젖어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느끼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터져나오는 말 한마디...
“할렐루야,”



(윤경문 목사)



나의 묵상과 기도





나의 묵상과 기도





보스톤 한인교회 (미국장로교)

The Korean Church of Boston (PCUSA)

32 Harvard St. Brookline, MA 02445 Tel: 617.739.2663 www.kcboston.org